

상장기업 영업이익률 8.66% 불과

2004년 상반기 대비 2.29%p 하락 ... 금융업 호조에 제조업 빈곤

상장기업들이 전체 판매액에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<12월 결산법인 상반기 실적>에 따르면,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 전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.66%로 전년동기대비 2.29%p 하락했다.

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매출액영업이익률 8.66%는 1000원 매출에 86.6원의 이익을 올렸음을 의미하고 있다.

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상반기 8.08%로 3.37%p 떨어졌으나 금융업은 17.93%로 14.27%p 급등해 대조를 이루었다.

제조업에서도 영업정지, 부도 등이 발생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관리종목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.96%로 0.46%p 낮아졌다.

특히, 제조업은 2/4분기만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7.70%로 전년동기대비 3.40%p 하락했으나 금융업은 19.42%로 14.24%p 급상승해 제조업은 갈수록 수익성 떨어지고 있으나 금융업은 반대를 나타냈다.

강원랜드의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.85%p 상승한 51.36%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LG카드 47.19%(103.02%p ↑), KTB네트워크 39.53%(94.21%p ↑), 엔씨소프트 34.09%(14.57%p ↓), POSCO 31.76%(7.47% P ↑), 일성신약 28.87%(3.78%p ↑), KT&G 28.55%(9.15%p ↓) 등이다.

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상반기 5.16%로 전년동기대비 0.83%p 낮아졌다.

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3.50%p 낮은 것이다.

벤처기업이 5.85%로 3.05%p, 일반 상장기업이 5.05%로 0.19%p 각각 낮아졌고 금융업은 적자였다.

코스닥기업 중 유필스가 24.03%p 급등한 60.86%로 가장 높았고 더존디지털 54.06%(36.64%p ↑), 경동제약 40.03%(3.53%p ↑), 리노공업 38.16%(1.21%p ↓), 큐릭스 38.12%(5.97%p ↑), 안철수연구소 36.36%(6.23%p ↑) 순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05/08/19>